

■ 외국인 며느리 호티반씨(베트남)의 추석맞이



김기중·호티반 부부

“이번 추석엔 차례상 직접 차릴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 사는 김기중·호티반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다. 조카인 이상인(6)군이 노래를 부르자 온 가족이 즐거워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그랗게 생긴 공을 만들고 나서 가운데를 눌러서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 봐. 그다음에 속을 넣는 거야.” “엄마, 속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자꾸 터져요.”

16개월 전 베트남에서 광주로 시집 온 호티반(여·23·서구 서창동)씨는 추석을 나흘 앞둔 21일 시어머니 남순이(65)씨에게 송편 빚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모양은 들쭉날쭉 하지만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인 며느리 열과 안 바꾸제”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잘해요. 한국인 며느리 열을 데려와도 안바꾸제.”

며느리 자랑이 그칠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고 호티반씨는 손사래를 치며 수줍어한다. 시아버지 김덕수(69)씨도 “외국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응을 잘해 너무나 고맙다”며 며느리 자랑에 한마디 거든다. 호티반씨는 행복하다. 무엇을 하든지 ‘잘한다’며 칭찬하는 시어머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을 헤드려도 ‘맛있다’며 잘 드시는 시어머니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김기중(39·중장비 기사)까지 가족 모두 호티반씨를 아껴주기 때문이다.

한국 시집와 두번째 맞는 추석

한국으로 시집와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 한국에 오자마자 맞았던 첫 번째 추석은 한국말을 잘 알지 못해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지만 이번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면서 직접 음식장만을 해보려고 시어머니에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

시어머니의 손길을 유심히 살펴보고 따라해보는 호티반씨의 눈빛은 진지하기만 하다. “한번은 시어머니가 ‘다마네기(양파) 좀 가져와’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다마네기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사투리를 잘 알지 못하는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는 ‘버끔’(거름) ‘냉갈’(연기) 등 전라도사투리를 줄이고 표준말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호티반씨도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마련한 한글교실에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고, 가족 드라마를 많이 챙겨보며 한국적인 가족문화를 익혔다.

덕분에 이제는 ‘아이고메’ ‘워매’ ‘아따’ 등의 사투리가 스스럼없이 나올 정도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웬만한 의사소통을 다하는 호티반씨이지만 여전히 ‘거시기’라는 표현은 어렵다.

‘워매’ ‘아따’ 등 사투리 술술

국제결혼이다 보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들 일도 많았을 것 같지만, 호티반씨 가정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화 해보면 낸 적 없어요.” 남편 김기중(39)씨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라며 애정을 과시했다.

호티반씨는 현재 임신 9개월째. 다음달 출산을 앞둔 배를 만지며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처럼 예쁘고 튼튼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高 “우주에 가족 사진 꼭 가지고 가고 싶어” 李 “대한민국 딱 두명중 한명된 것도 영광”

—우주인 선발을 예상했나.

▲선정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후 곧바로 이소연씨와 함께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해 탑승우주인 선정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혼자 있게 된 뒤에야 가족들과 주위 분들과 전화를 드릴 수 있었다.

—우주에 갈 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가족의 사진은 꼭 가지고 가고 싶다. 어머니나 여동생을 우주에 데려 갈수는 없지만, 사진이라도 함께 다녀오고 싶다.

—우주인 선정되기까지 훈련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솔직히 말해 훈련을 받는 동안 그렇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다. 물론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훈련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상황을 즐기려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다.

—과학 기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우선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자주 회자되는 지금도 사실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꿈을 지켜나가는 것을 개인의 역량에만 맡겨 놓을 수만도 없다. 현 시대에 과학기술은 국가의 성망을 좌우한다. 과학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주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

▲다른 우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우주 공간속에 떠있는 지구를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볼 때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된다고들 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예비 후보인 이소연씨에 대해 할말이 있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혼자였으면 훨씬 힘들었을 길을 함께여서 쉽게 달려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 첫 우주인 고산, 예비 우주인 이소연씨 인터뷰

내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설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선정된 고산(30)씨와 예비 우주인 이소연(28)씨는 광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승 속 꿈을 고이 간직하고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우크라이나 흑해에서 우주체험훈련을 받은 고산(오른쪽), 이소연(왼쪽)씨가 러시아 우주인 알렉산드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탑승 우주인으로 선발되지 못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비우주인으로 선정되어 축하를 받았다. 물론 탑승 우주인이 되어 우주에 가기위해 이제까지 노력을 했고 그것이 최종 목표였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주 실험중 관심을 끄는 분야는.

▲한국 음식을 우주에 가져가서 맛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에서 임무가 6개월정도 되는 우주인의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의 제한된 생활, 반복되는 식단등의 이유로 2~3개월이면 입맛을 잃게되어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내가 왜 우주인이 되겠다며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이곳에 와서 우주인 훈련을 받게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

무엇보다 영화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했던 러시아 우주인들과 미국 NASA 우주인들을 직접 만나고, 경

험을 듣는 것은 꿈처럼 멋진 일이다.

또 지난 여름 흑해 바다 한 가운데에서 귀환모들이 바다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훌륭한 과학자들이 꿈을 잃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분야든 어려운 일은 있다고 생각한다. 어렵지 않은 분야의 일이라면 그만큼 재미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은 어렵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소중하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과 조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보는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탑승 우주인인 고산씨에게 부탁이 있다면.

▲제 대신 탑승우주인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랄뿐이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추석연휴 29일 오전만 휴장합니다

연락처	010-9700-1111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111-1
홈페이지	www.ampyeong.com	주차장	1000여대
회원비	1000만원	회원비	1000만원
연회비	100만원	연회비	100만원
골프비	100만원	골프비	100만원